

# 드론·로봇이 농사...고령화 들녘에 활력 불어 넣는다

## 고흥 스마트팜 선정 의미와 효과

전남도가 두 번째 도전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따냈다. 전남 농업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제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유통시스템, 농촌 고령 인구 증가 및 출산을 저하 등의 대책이자 농업용 드론·로봇, ICT(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의 성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진행된 1차 공모에서 후보지로 해남을 제시했지만 전북(김제), 경북(상주)에 밀려 탈락한 바 있어 2차 공모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전후방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이를 통해 검증된 첨단 기술을 도내 농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드론, 로봇 등이 농사 짓는 스마트팜=스마트팜(Smart Farm)은 말 그대로 '영리한 농장'을 의미한다. 좁게는 스마트폰,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과 비슷한 개념을 농사에 적용한 것이다.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적정 온도·습도·햇빛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수요에 맞는 생산,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업에 있어서 생산성, 효율성, 품질 향상 등이 가능해지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다만 이들 장비나 기계, 장치 등이 고가여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아열대 작물 재배에 일본·홍콩·싱가폴 등에 수출=전남도는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신양리 등 간척지 일원에 들어설 스마트팜 생산시설에서 아열대 작물(만감류), 지역특화작물(멜론), 수출 품목(스페셜T토마토, 메리퀸 딸기) 등을 생산해 수입 과일을 대체하고 동남아에 수출할 방침이다. 또 폭염에도 생산이 가능한 남방형 반밀폐형 시설 자체를 국산화하는 한편 국내 간척지 첨단 유리온실의 건축 노하우를 확산하는 기지로 삼기로 했다.

청년보육 공간에서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설원에 첨단 관련 청년 창업농을 연간 60명

## 아열대 작물 키워 동남아 역수출

### 청년 창업농 연간 60명씩 육성

### 3938명 일자리 4748억 생산유발

씩 육성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도 제공한다. 청년 농업인 5000명을 육성하고, '내사랑 고흥 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단지에서는 남해화학 등 기업, 전남대 등 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실용·첨단·미래 기술들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0년 3월 공사 착공=2127개 전남도내 일자리 창출=전남도는 4월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밸리 운영 조직을 설립한 후 실시계획이 마련되면, 2020년 3월 핵심시설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면 전남

2127명 등 3038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남 2871억원 등 474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전남 969억원 등 1559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철골비닐·유리 온실 시공·재배·판매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직접 소요된 노동력, 생산에 투입한 중간재와 최종 생산물, 서비스가 지역 및 산업으로 파급된 효과 등에 기반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학생 모집·보육·정착·정주까지 성공 정착을 위한 패키지 지원 정책에 나서 청년의 농촌 유입을 이끌고,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시설원에 기술혁신 확산, 남방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로 대한민국 시설원에 거점으로서의 도약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탈락 이후 혁신밸리 추진단 및 별도의 팀을 구성해 신속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민회 등 23개 농업인 단체, 기관, 단체 등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혁신밸리 주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법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흥원 설립(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1 스마트 육묘장
- 2 지역주민 참여형 스마트팜 단지
- 3 으뜸산실센터(스타트업, 체험, 지원센터)
- 4 스마트팜 실증단지(빅데이터, 테스트베드)
- 5 물 저장탱크(빗물 및 용수 공간)
- 6 빗물 저수조 및 필터
- 7 실습농장(교육형, 경영형)
- 8 청년창업 보육센터(교육시설)
- 9 공동 주차장(화물 화역)
- 10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 11 스마트 배자원, 에너지 처리시설
- 12 APC시설(기온) : 산별, 포상, 유통
- 13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차로 5분거리
- 14 지식산업센터 : 차로 3분거리
- 15 농도 농업경영체 단지(농양명농조합법인)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역사성·상징성·가치성 3대 원칙 기억·추모·계승·소통 공간 구성

### 옛 전남도청 복원계획 설명회

### 5월 전시 콘텐츠 기본방향 발표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6개동 건물 복원은 역사성, 상징성, 가치성을 토대로 진행되며 오는 2022년 복원사업이 완료된다.

28일 오후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옛 전남도청복원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복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 기억의 저장소로서의 상징성, 정신을 계승하고 지향하는 가치성에 근거해 진행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복원 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기본계획 및 연구계획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랐다. 과업수행자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으며 이후 이 국무총리가 체계를 갖춘 신속한 복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체부, 광주시 등 7명으로 이루어진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구성됐으며 이어 12월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전문가 자문회의와 5·18단체보고회 및 의견수렴, 광주시 5·18기념사업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보고를 끝으로 연구용역이 완료됐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5월 전시 콘텐츠 구축 기본계획이 발표되며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복원 건축 설계 용역이 추진된다. 전시 콘텐츠 구축사업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이어지며, 복원 건축 공사는 내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복원협의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향후 전시 콘텐츠 및 공간구성 기본방향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는 공간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는 공간 ▲민주·인권·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하는 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소통·상생하는 공간을 기획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참여·공감·치유 등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해 미래세대 교육체험의 장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시 콘텐츠 공간 구성의 성패는 자료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원협의회는 80년 당시 상징성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구현되 설계 및 공사 진행 중에도 자료 수집, 제보 접수, 현장 검증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료 부족으로 당시 상황을 구현할 수 없는 공간은 자료 확보, 검증 후 구성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전시 콘텐츠 및 공간별 활용방안도 주요 과제다. 복원된 건물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역사성과 상징성, 가치성이라는 기본 전제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관심 사항이다. 이에 따라 복원협의회는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복원 계획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제37주년 5·18기념식에 참석해 복원 협의회와 협력을 약속하면서 구체화됐다. 이후 2017년 10월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가 구성됐으며 2018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심의·의결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될 것"

### 외국인 투자 기업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반도 평화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각국 경영단체와 주요 기업 등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한국경제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외국기업 관계자들과 단체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정학적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우수한 산업·무역 인프라와 함께 높은 개방성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작년 기업환경평가에서 190개국 중 5위를 기

록했다.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EU(유럽연합)·중국·아세안·인도 등 52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77%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세계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투자와 모범사례가 이어지도록 정부·지자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지원 |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드립니다!!

- 하나**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 및 내수면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둘**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 셋** 귀어·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넷**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다섯**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2018년 2년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원다리새우 양식 창업자**  
고0찬(충남 태안) 김0혁(인천 강화) 김0희(인천 옹진) 김0현(전북 익산) 박0웅(충남 부여) 배0준(충남 태안) 신0성(전남 무안) 이0형(경남 남해) 정0영(충남 태안) 천0주(전남 신안) 최0중(전남 영암) 최0욱(경남 사천) 추0선(경남 거제) 허0완(전남 신안)

**큰정거미새우 양식 창업자**  
강0용(경남 산청) 권0도(경북 경산) 김0열(전남 강진) 김0우(경남 부산) 김0민(경남 하동) 김0일(전남 영암) 김0구(전남 화순) 김0주(경북 청송) 박0홍(경남 울산) 박0영(충남 금산) 박0영(경북 청송) 박0이(전남 나주) 심0우(전남 신안) 안0홍(전남 목포) 오0형(강원 홍천) 이0남(전북 고창) 허0치(경북 성주)

## 양식창업에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교육, 창업지원컨설팅, 모니터링 참가자 및 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5~6월 모집공고, 7~8월 기술이전교육 진행 예정)

